

가끔 상상하곤 해

- 윤평안

가끔 상상하곤 해,
막내마저 졸업하고 떠난
우리 둘만 남겨진 시간과 공간,
피하지 못할
반드시 찾아올 시간과 공간을.

저녁 8시 7분,
해는 막 땅 아래로 타 들어간 9월의 하늘,
땅끝과 하늘 끝이 만나는 곳은 별경계 물들고
머리 위에선 까맣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기막힌 타이밍에 드는 이런 상상은
너무나 쓸쓸함만 남기는 것 같아.

그땐 얼마나 그리울까?
아내는 내 옆에서 말동무 길동무가 되어줄까?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
딩그러니 남겨진 이방 땅에서
둘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둘은 혼자가 아니니까,
우린 둘만도 아니니까,

신나는 일들도 찾아올 거야
여행 가방을 챙기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것 같은

설렘도 찾아올 거야,
손은 더 자주 잡을 거고
보지 못했던 곳도 보게 될 거고
더 자주 설렐 거야,
새로운 일들에
정신이 없을 거고
새로 오는 아이들에
정신을 잃을 거야
사랑스러워서,

우린
먼 곳에서 오가는 소식에
서로 기특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워하다 만나게 되는 반가움을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반가움을
만날 때마다 누리게 될 거야,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18년 동안의 성장보다
아이들은 더 많이 더 깊이 자라 있을 거고,
우린 껌껌이 쌓였던 그리움을
하나씩 지워버릴 거야,
아니지, 더 깊게 심장에 새겨 들거야,

이렇게
"하람, 주영, 택함,
그리고
현순"

